

정부 “한국인 인간광우병 위험 높아” 일부 인정

美 쇠고기 수입 ‘결장 회견’

정부는 지난 2일에 이어 6일 다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인간광우병 위험은 매우 낮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국인에게 많은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부분적으로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쇠고기 먹는 미국인도 인간광우병 발병률 낮아 =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실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은 모두 급격히 감소했으며 미국내 인간광우병 환자 3명도 모두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변종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발생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변종CJD의 잠복기가 10년 정도인데, 이 질병이 많이 발생하던 시점으로부터 10년 정도 경과했으나 그동안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앞으로 추가적인 발병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MM형 유전자, 인간광우병 위험요인” = 이번 인간광우병 공포 확산에서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는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서양인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인의 95%가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6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신부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등에 관한 두번째 ‘결장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산 쇠고기 변종 CJD 발생 위험 매우 낮다” 강변

MM형 프리온유전자가 인간광우병의 위험요인 중 하나라는 데 대해서는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한·중·일이 다 비슷하며, 위험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해명만을 되풀이 하던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연령, 영국 출생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 질

환의 발병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뇌와 척수, 중장기적으로 감염력 높지만 당장은 안전” = 최근 질병관리본부 지침서에 소의 뇌 및 척수 부위로 인한 직접적인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식습관을 바꾸도록 홍보하는 내용이 실린 것이 이들 조직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광우병 감염된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감염력이 높은 부위인 뇌, 척수, 안구 등의 부위의 섭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당장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한국인 광우병 취약” 김용선교수팀 논문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대거 참여 밝혀져

에 ‘한국인에서의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PRNP)의 다형성’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제1저자는 한림대 의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연구사인 정병훈 박사, 교신 저자는 김 교수로 돼 있다. 또 제2저자는 남재환씨, 제3저자는 이운정씨, 제4저자는 이경희씨, 제5저자는 장병

국씨, 제6저자는 리처드 I.카프, 제7저자는 이호동씨, 제8저자는 주영란씨, 제9저자는 삼미 안 조(한국 이름 안삼미)씨, 제10저자는 박근용씨 등으로 돼 있다. 이 중에서 당시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팀 소속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인물은 남재환씨(제2저자), 이호동씨

(제7저자), 주영란씨(제8저자), 안삼미씨(제9저자), 박근용씨(제10저자) 등 모두 5명이다. 전체 논문저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현재 남재환씨만 질병관리본부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신경계바이러스팀, 혈액안전감시팀, 심혈관회귀질환팀 등 질병관리본부 다른 팀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연구가 당시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뇌의학 연구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7·6 全大 흥행 고심

통합민주당이 7·6 전당대회 흥행에 고심하고 있다.

7월 전대가 대선과 총선 참패 후 당을 새롭게 이끌 선장을 뽑는 무대란 점에서 ‘제2의 창당’에 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당 대표 주자군의 인물난이 심각한 데다 전당대회 일정도 한나라당과 비슷, 국민적 관심이 결집될 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6월 중순을 전후로 전당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장소 확보 등이 여의치 않아 7월6일로 전대 일정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7월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을 예정이고 민주당은 7월6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지도체제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다 잡히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경선 방법이 유력, 지도부 진출을 노리는 상당수 인사가 최고위원 경선 쪽으로 몰릴 전망이다. 대 표 경선은 다소 미미한 대결구도를 연출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전대 준비위 구성을 완료, 홍보·기획 분과 등을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과 국민적 흥미를 제

고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모바일 투표’ 도입 등 흥행 제고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의원에게만 전대 투표권을 부여했던 그간의 폐쇄적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黨員 등에게도 부분적으로 투표 기회를 개방해 ‘바람’을 일으키자는 주장이 쉼.

여기에는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로 막판 흥행 몰이에 나섰던 경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 도입을 두고 당내 세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세균 의장과 상대적으로 조직기반이 취약한 추미애 전 의원, 천정배 의원 등 주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일 수밖에 없어 공론화될 경우 이견도 예상된다.

이 외에 전국 각 지역별 순회 경선 실시 및 주자 간 TV 토론 활성화 등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대가 당의 새로운 정체성과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장으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인명진 윤리위원장 사의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62)이 6일 당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기자회견과 통화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을 해야 하고, 20개월 동안 지치기도 해 이제는 쉬려고 한다”면서 “그동안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 희생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정권교체도 해서 훌훌하게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사 문제 등에서 국민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게 있구나’ 반성하고, 고치기도 해야지 맞서는 인상을 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또 “당이 그런 민심의 통로가 돼야 하는데 당도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전해 민의가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창조한국당 ‘공천현금’ 의혹

검찰 “문 대표 조사 불가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현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용걸 부장검사)는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구속수감) 당선자의 공천과정에 문국현 대표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문 대표에 대한 소환시기를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 대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는 이 당선자가 당선권 순번을 배정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소환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공천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문 대표 측 해명과 달리, 공천 이전에 이 당선자가 문 대표를 만난 적이 있고 공천과정에서도 문 대표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내영교육학 개강 5월 2일

교사 임용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국내영교육학이 차라리 빨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1.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3. 교육사 4. 교육심리학 5. 교육평가 6. 교육행정학 7. 교육법학 8. 교육정책학 9. 교육공학 10. 교육연구방법론

국내영교육학부 ☎ 529-0090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2008학년도 2학기

1. 문화정책학 2. 문화경영학 3. 문화인류학 4. 문화유산학 5. 문화관광학 6. 문화체육학 7. 문화예술학 8. 문화정보학 9. 문화복지학 10. 문화환경학

1. 모집인원: 100명
 2. 모집기간: 5월 12일(수) ~ 5월 14일(금)
 3. 모집대상: 2008학년도 2학기 대학원 신입생
 4. 모집방법: 서류전형(5월 12일) 및 면접(5월 14일)
 5. 지원자격: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6. 지원서류: 1. 지원서 2. 학력증명서 3. 전공 관련 연구계획서 4. 자기소개서 5. 학적부 사본 6. 최근 2cm x 2cm 사진 2장 7. 기타 관련 서류

1. 지원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입학처
 2. 문의처: 061-270-2111 (내선 2111)

전남대학교

신명안내

1. 신명안내란: 신명안내란 신명안내를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를 할 때는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를 할 때는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2. 신명안내 신청: 신명안내 신청은 신명안내 신청을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신청을 할 때는 신명안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신청을 할 때는 신명안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명안내 접수: 신명안내 접수는 신명안내 접수를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접수를 할 때는 신명안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접수를 할 때는 신명안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4. 신명안내 심사: 신명안내 심사는 신명안내 심사를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심사를 할 때는 신명안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심사를 할 때는 신명안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신명안내 발표: 신명안내 발표는 신명안내 발표를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발표를 할 때는 신명안내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발표를 할 때는 신명안내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6. 신명안내 등록: 신명안내 등록은 신명안내 등록을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등록을 할 때는 신명안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등록을 할 때는 신명안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7. 신명안내 이수: 신명안내 이수는 신명안내 이수를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이수를 할 때는 신명안내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이수를 할 때는 신명안내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8. 신명안내 증명: 신명안내 증명은 신명안내 증명을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증명을 할 때는 신명안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증명을 할 때는 신명안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9. 신명안내 발급: 신명안내 발급은 신명안내 발급을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발급을 할 때는 신명안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발급을 할 때는 신명안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10. 신명안내 보관: 신명안내 보관은 신명안내 보관을 통해 신명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보관을 할 때는 신명안내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안내 보관을 할 때는 신명안내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